

## 다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관심 풀어가요!

뇌과학심리연구반 ‘다운’은 뇌과학과 심리학 조별 스터디 및 발표가 주요 활동이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또래상담동아리도 또래상담 양성 교육에도 참여하고 자격증도 취득했지만, 지난해 뇌과학심리연구반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뇌과학과 심리학 연구 및 연계 탐구 발표로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단장 박제윤(3)군은 “또래상담 교육을 받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시작은 1학년 때 심리학자 관련 수업을 듣고 발표하는 것이었다”라며 “활동을 하며 자연스럽게 사람의 뇌에까지 흥미가 생겼고, 심리학과 뇌과학을 함께 알아보고 또 연구해보는 동아리로 변경하게 됐다”고 동아리 활동 영역이 넓어지게 된 이유를 들려줬다. 또 제윤군은 “선생님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너무나 다양하게 제공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뇌과학심리연구반으로 공식 동아리명이 바뀌고 난 후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서연우(2·단장)군은 “프로파일러가 꿈으로 심리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 관심사와 다운의 활동이 딱 맞아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다”라며 “또래상담동아리가 다소 문과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뇌과학심리연구반은 과학적인 부분이 많이 더해져 문과와 이과를 아우르는 동아리로 올해에도 많은 신입생이 다운의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신입생 10명을 선발하는데 30명이 넘는 학생이 지원한 다운. 부원 선발 시 이들이 1차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성실

성이었다.

서류에서의 성실도를 바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2차 면접을 치러야 했는데, 이때에는 심리학과 뇌과학에 대한 관심도와 자기주도적인 탐구 경험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소통과 협업 능력이 선발 기준이 됐다.

또, 다운은 2022년부터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선정 도박예방실천학교동아리로도 선정되어 도박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도 펼치고 있다.

## 매쓰홀릭 다양한 수학적 경험, 새롭고 즐거워요!

수학연구반 매쓰홀릭은 그 역사가 10년이 넘는 동아리로 신입생 지원율이 30대 1에 육박하는 배재고 인기 동아리다. 수학동아리라고 해서 딱딱한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동아리 첫 활동은 교정에 핀 벚꽃의 꽃잎 수를 어림잡아보는 것(페르미 추정)으로 시작하고, 현실과 연결된 다양한 수학적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강준서(2·단장)군은 “논리력과 사고력



접하게 된다.

수학과 관련된 다양한 심화 및 융합 활동도 펼친다.

김정수(2)군은 “신소재공학 쪽에 관심이 많은데 동아리 시간에 플라스틱의 생분해성과 강도의 상호 관계를 그래프로 발표한 적이 있다”라며 “관련학과와 수학을 연관시킨 부분에서 흥미롭고 또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라고 말했다.

매쓰홀릭 부원은 1, 2학년 각각 7명. 올해 신입생 7명을 뽑는데 무려 135명이 지원해 3차에 걸친 간간한 선발 과정을 치러야 했다. 1차 과정은 논술형 수학 시험. 2학년 부원들이 직접 문제를 제출했는데 3개 이상 맞혀 2차에 오른 학생들이 30여명이었다. 2차는 면접으로 3가지 질문에 대한 엄격한 과정이 이어졌다. ‘중학교 때 수학 심화 탐구 경험’ ‘1차에서의 시험 풀이 과정을 직접 말로 설명하기’에 이어 마지막 ‘인성 문제’까지 간간한 테스트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들은 “직접 문제를 만들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1학년 학생들의 면접을 통해 배운 바도 크다”라며 “앞으로도 수학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말했다.

## 배재고 대표 동아리

‘Excelsior! Paichai!’(더 높이 배재)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 교육 구현에 집중하고 있는 배재고등학교. 배재고의 인기 동아리는 뇌과학심리연구반 ‘다운’과 수학연구반 ‘매쓰홀릭’이다.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고 토론해보는 활동과 함께 우리 동아리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라며 “수학 달력 만들기가 그 대표적 활동”이라 말했다.

수학 달력은 1년 365일을 수학적으로 표현해 나타내는 달력으로 문제를 풀거나 수학 기호를 이해했을 때 정확한 날짜가 나오는 식이다. 부원들은 각자 맡은 숫자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수학을